

현재 우리 나라의 만화계는 총체적으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다. 작가, 독자, 출판인, 평론 등 만화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요소도 만화계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는 시각매체인 만화가 대중예술로서 그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만화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이에 일본 만화는 우리 사회를 점령해 가고 있다. 텔레비전의 만화영화를 보라. 국적불명으로 방영

높아져, 일본 대중문화와의 접촉이 문화의 수용을 넘어 문화적 제국주의 형태를 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못을 지책하는 차원에서 끝나선 안된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만화를 하고자 하는 젊은 세

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절실하다. 장기적인 수련과정이 필요한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화가를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게 하려면 전문교육기관인 만화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현재 진행중인 예술종합학교에 만화학과를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조처가 있어야 한다.

### 교육기관·정부투자 절실

국민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만화를 다룸으로써 당당한 문화로서 만화를 인식시키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한다.



## 우리 만화를 살리자

되지만 거의 다 일본작품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만화는 우리와 동등한 경쟁상태가 되기는커녕 국적불명 또는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 것인 양 슬그머니 공인되는 사태를 빚어내지 않은가?

### 일본만화 침투 위험수위

지난 5월1일 열린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아동학과 이순형 교수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일본 번역만화 구독실태와 문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일본 만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대일 선망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청소년이 일본 만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일본에 대한 선망의식도



백 정 숙

우리만화협의회 운영위원

대는 나날이 늘어만 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좋은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공주전대 만화학과 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우리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재양성과 함께 현재 우리 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한 일본 만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만화가 일본 만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 만화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우리 만화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정부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만화계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혹시 과거에 불합리한 방법으로 제작한 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자기 수련 속에 창작한 질 높은 작품을 많이 내와야 한다. 새 세대 젊은 작가와 지망생들도 우리의 만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